



32차 정기대의원대회 및 8대 집행부 출범식 성료



2024년 11월 26일,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은 한국노총회관 13층 여율리에서 열린 정기대의원대회 및 8대 집행부 출범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출범식에는 노동계를 비롯해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 금융노조 김형선 위원장, IT연맹 신건택 위원장, 전력연맹 최철호 위원장, 연합노련 최상근 위원장, 서울지역본부 김기철 의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단장 전현희 의원, 고민정, 김주영, 이수진, 박해철, 박홍배, 김동아 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한편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을 준비 중인 녹색병원 임상혁 원장과 <김복동의 희망> 윤미향 공동대표도 자리를 빛냈다. 권미경 위원장은 출범사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노동조합다운 노동조합, 사람을 죽이려는 노조가 아니라 살리려는 노조,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노동조합이 되겠다”며 “공공연대노련의 입을 틀어막으려 해도, 진실한 외침은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8대 집행부는 윤석열 퇴진! 시대의 정상화를 목표로 똘똘 뭉쳐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출범식에 이어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윤석열 퇴진 투쟁을 포함한 조직, 정책 사업과 입법 투쟁 과제를 의결했다. 공공연대노련은 권미경 위원장 선출 이후 의료본부장과 대학본부장을 선출하며 빠르게 조직을 개편하고 당면 목표로 1만 5천 조직으로 확대 직후, 2만 조합원을 1차 목표로 제시했다.



공공연대노련 깃발 아래 윤석열 퇴진, 투쟁!

공공연대노련은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월 4일부터 매일 여의도 국회 앞 윤석열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매일 저녁 열리는 촛불집회와 주말 열리는 범국민 촛불대행진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한 결과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재표결에 가결되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내란수와 윤석열의 체포와 파면을 위한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12월 28일부터 공공연대노련도 함께 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25년 1월 10일부터 윤석열 체포, 구속을 위한 관저 앞 천막 농성을 시작했고, 공공연대노련 역시 천막농성 지지방문과 더불어 한남동 관저 앞 집회에 적극 결합했다. 권미경 위원장은 12일과 13일 집회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시작한 이 싸움은 거대한 흐름으로 반노동정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투쟁이 될 거라 믿는다”며 윤석열 정권의 종식 또한 노동권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불법 비상계엄으로부터 43일이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경 윤석열 체포영장이 집행되어,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천막농성 해단식을 갖고 윤석열 체포를 넘어 처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 간담회

공공연대노련 대학분부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국회 교육위원장)과 11월 15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사립대학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노총에서 유일하게 대학 노동조합이 가맹하고 있는 공공연대노련과 대학 등 교육 관련 법안 소관 위원회인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상견례로, 공공연대노련의 대학 노동정책 및 대 국회 활동의 출발점으로 마련했다.

권미경 위원장은 "사학재단과 교직원 처우 등 대학노동자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 과정을 통해 정책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면서 대학 정책 법률 입안 등 국회와의 소통창구를 여는 의미를 짚었다.

이에 김영호 위원장은 "대학민주화와 교육계 개혁이 필요한 만큼 학교가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는 교육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면서 향후 지속적 소통을 약속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공공연대노련 권미경 위원장과 대학본부 김호봉 본부장(연세대학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건국대노조, 경기대노조, 대구대노조, 서울디지털대노조, 연세대(미래)노조, 영남대노조 위원장 등 8인이 함께 배석했다.

강서대학교 직원노동조합 ReBorn 출범식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강서대학교 하딩관 1층 북카페에서 강서대학교 직원노동조합(이하 강서대노조)의 출범식이 개최되었다. 강서대노조는 2014년 7월 23일에 창립되었지만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지는 못하다가 2024년 10월 22일 공공연대노련에 가입하면서 그를 기념하고 새로이 결의를 다지는 ReBorn 출범식을 진행하였다. 권미경 위원장은 이날 강서대 노조의 출범식을 축하하며 공공연대노련의 기업을 환영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 전태일의료센터 후원금 전달식



2024년 12월 20일, 공공연대노련은 한국노총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노동공제회)에 후원금 300만 원을, 전태일의료센터 건립기금 200만 원 후원금 전달식을 각각 가졌다. (이 외 건대병원노동조합 100만 원, 서울의료원노동조합 100만 원,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100만 원) 이날 전달한 후원금은 지난 11월 26일 공공연대노련 제32차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한 외부인들이 전해준 축하금으로 마련되었다. 노동공제회 김동만 이사장은 노동운동의 선배로서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와 노동조합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 등을 일러 주었다.

녹색병원 임상혁 원장은 전태일의 정신과 전태일의료센터를 설명하며 후원의 의의를 전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권미경 위원장은 뜻깊은 후원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주요 일정

공공연대노련 대표자회의 및 워크숍

- 2월 18일(화)~19일(수)
- 대전인터시티호텔 3층 오크홀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 2월 26일(수) 오후 1시
- 한국마사회 컨벤션홀